

오늘의 기사판

31일
행사
▶전남 영화학교 개교식=오전 9시 광양시청 상황실.
▶하계 충효교실 개강식=오전 9시 장성군 남면 연천경로당.
▶2006 성인문화교육 개강=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주월2동 사무소.
(8월1일)
▶1시:군 1유동회사 설립계획 보고회=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
▶만덕초교·나고야 소학교 국제교류 환영식=오전 10시 담양군 만덕초교.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 무대=오후 8시 순천 동천보트장.
순천 시립예술단 공연.
▶어린이 연극학교=8월5일까지 민들레 소극장.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전 순천문화예술회관 1전시실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전=8월6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 1전시실.
▶향덕 서학회전=8월2일까지 메트로갤러리.
▶백일 공예전=8월2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국제판화워크숍=8월 9일까지 우재길미술관.
▶무진서각 전동각자전=8월1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 올해 말까지.
▶의향 호남을 말한다 '미술로 만나는 약무호남전'=8월 9일까지 나인갤러리.
▶대지의 숨결전=8월10일까지 자미갤러리.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역사속의 오늘

▶발명왕 에디슨, 축음기 발명(1877)
▶교향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헝가리 음악가 프란츠 리스트 세상 떠남(1886)
▶조봉암 사형 집행(1959)
▶싱가포르 독립(1963)
▶문공부, '창작과 비평'문화과 지상'뿌리깊은 나무' 등 172개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1980)
▶국가안전기획부, 전남 진도에서 몰래 활동하던 고정간첩 7명 검거(1981)
▶신형주대교 붕괴(1992)



광주일보가 실시한 21·22회 뉴스 퀴즈 추천 결과, 반순림 씨가 1등에 뽑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반씨는 30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천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이 됐습니다.

21·22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27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사원 박선영씨가 추천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임재홍 경사와 정익진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반순림·광주시 북구 임동
2위 ▶김형기·광주시 북구 용봉동

뉴스퀴즈

23. 한국의 두 번째 다목적 실용위성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위성은 지난 28일 오후 4시 5분(한국 시간) 러시아 플레세츠크 기지에서 러시아 발사체 '로켓'에 실려 지구 상공 685km의 태양 동기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고해상도(1m급)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①아리랑 2호 ②디스커버리호 ③아폴로 ④머큐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열어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당첨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박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

21회 - ① 이탈리아, 22회 - ① 왕의남자

함께 풀어봅시다 < 2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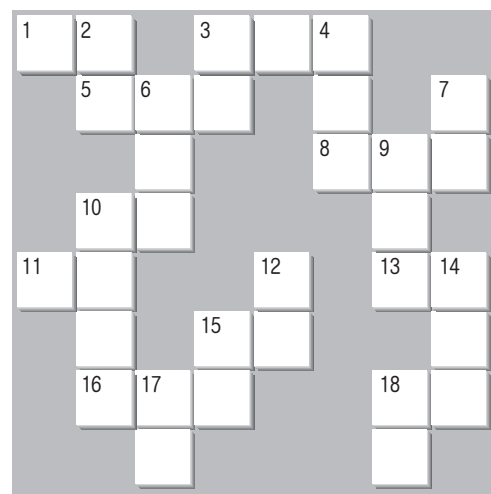
→ 가로풀이

1.선거에서 뽑힘. 그가 출마하면 ~이 확실하다.
3.'밥을 먹다'의 '먹다'처럼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자동차. 5.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하여 정관(定款)에 서명한 사람.
8.'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라는 뜻을 가진 부사. 죄인을 하나도 남김없이 ~ 잡아들여라.
10.폭풍,홍수,지진,화재 등 재해를 막는 일. 장마기간에는 각종 ~ 시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11.바둑에서 계가 시 서로의 집 수 차이가 91집 이상일 때를 이르는 말.
13.만. 끝. 또는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사태가 ~으로 치달다.
15.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는 물건. ~을 물리다.
16.부드럽게 굽은 선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한국 도자기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18.한 천체(天體)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 행성이 태양의 둘레를 돌거나 위성이 행성의 둘레를 도는 일을 이른다.

↓ 세로풀이

2.많은 가운데서 골라 뽑음. 축구 국가대표에 ~되다. 3.다른 사람. 4.윗면이 네모난 모자. 예전에는 대학생이나 전문학교 학생들이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졸업식 때만 주로 쓴다. 6.기계,기구,자재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각종 건축 ~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7.친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친구 간에는 ~가 있어야 한다. 그 사람 보기보다는 ~가 있네. 9.종지 못한 목적을 위해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지어내거나 꾸며 내는



〈함께 풀어봅시다 211회 정답〉

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8.밥을 뒤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뺐. 동아리 회비를 월급에서 먼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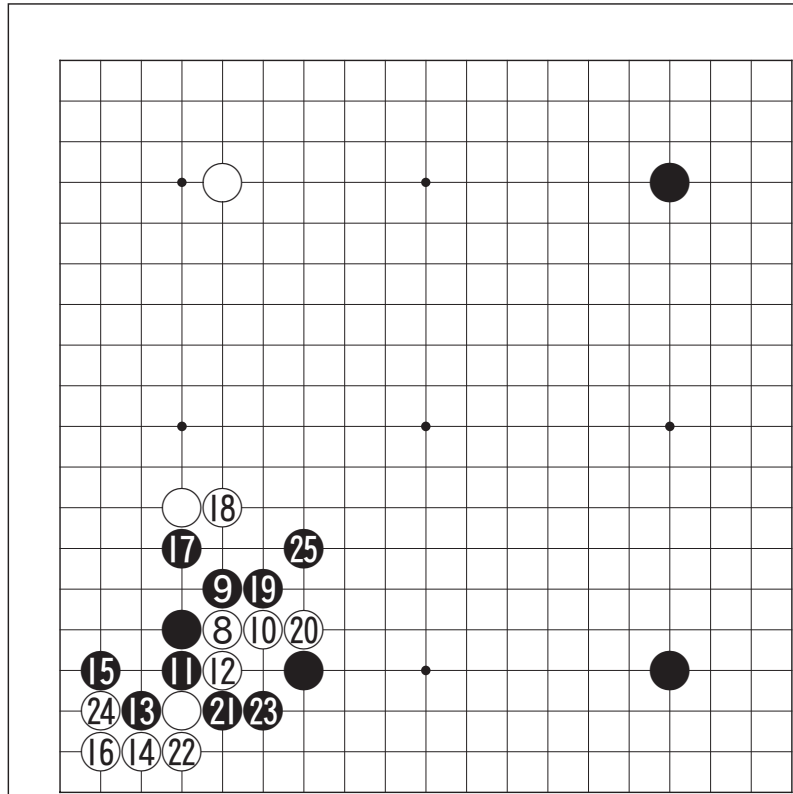
▶지난주 정답자

안세원·광주시 남구 백운동 정선영·여수시 학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천,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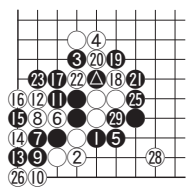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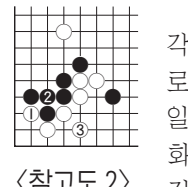
제15회 광주·전남 지방바둑대회

'악명높은 정석' 3회전 제2모(8~25)

백 이상호 5단 (광주시청 A)
흑 김성호 5단 (농협)



〈참고도 1〉



〈참고도 2〉

이 요도(妖刀)정석은 이를 그대로 곳곳에 함정이 많고 수많은 변화로 악명이 높다.
백 12로 빈삼각으로 틀어막고 14로 이단 찢힌 수가 일종의 함정수로 변화를 구한 것이 때 걸릴 5단은 복잡한 것이 싫었는지 15로 후퇴하고 말았
는데 이것은 기세에 눌린 결과가 되고 만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끊고, 복잡하지만 흑 29까지 전지 대패를 만들어 중앙 백 너집을 잡는 것이 필연이며 최선이다.수순중 11과 17이 좋은 수다. 왜 좋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얀 백 16도 기합이 빠진 수. 이 수로는 당연히 '참고도2'의 1로 단수치고 3으로 호구해 흑 15의 약수를 추궁해야 했다. 서로 실수를 주고받아 25까지 난전의 양상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영구, 신에프로10결전 순항

이영구 6단이 최근 스카이다움 스투디오에서 열린 제10기 SK가스배 신에프로10결전 B조리그에서 김해민 4단에게 197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현재 선두권 경쟁이 치열한 B조에서는 이영구 6단이 3승1패를 마크하고 있으며, 윤준상 4단이 2전 전승을 기록하는 등 두 기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반면 김해민 4단은 4전 전패를 당하는 등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만 25세, 5단 이하의 기사들만 참가할 수 있는 이 대회는 모두 12명의 신에기사들이 A, B 두개조로 나뉘 리그를 벌인 뒤 각 조 동 순위자까지 대국, 최종 1위에서 10위까지 랭킹을 선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00>

I'm looking forward to~ ~하기를 고대하다

A:(Over the phone) When will you be in Gwang-Ju?
B:I'm coming in on Friday.
A: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B:I am, too. Please give my best to your wife.

A:(전화기에 대고서) 언제 광주에 올 건가?
B:금요일에 갈 예정이래네.
A:나는 자네를 만나길 고대하고 있네.
B:나도 마찬가지로. 자네 부인에게 안부나 전해주게.

come in : 도착하다.
- Did your plane come in on time?
look forward to ~ = ~하기를 고대하다.
give my best to ~ = ~에게 안부를 전하다
give my best = say Hello = give my (best) regards to ~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00>

'パソコン'っていうそうですよ '퍼슨홀'이라고 한답니다

A:マンホールっていう言葉(ことば)があるんでしょう。あれは差別用語(さべつようご)なんですって。正(ただ)しい言(い)いは'パソコン'っていうそうですよ。
B:どうですか?
A:男(おとこ)の人(ひと)が出(で)たり入(はい)ったりする穴(あな)という意味(いみ)があるからです。女(おんな)の人(ひと)も出(で)たり入(はい)ったりするんでしょう?だから。
B:別(べつ)にどうでもいとお(おも)うけど、けっこう気になるんですね。

A:맨홀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건 차별용어라나요. 바른 표현은 '퍼슨홀'이라고 한답니다.
B:어째서 말입니까?
A:남성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구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도 들어가거나 나오죠? 그러니까...
B:특별히 어떻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경 쓰는군요.

マンホール: 맨홀
差別用語(さべつようご): 차별용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418>

我要发传真 팩스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A:请问你有什么事?
B:我要发传真.
A:请告诉我电话号码.
B:好的.
A:请告诉我电话号码?
B:好的.
A:请告诉我电话号码?
B:好的.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318>

避暑 (피서) 피할 피, 더울 서

피(避)는 작(口: 발의 동작)+벽(辟: 한쪽으로 기울어짐)으로, 중심선에서 옆으로 피하는 것을 뜻한다. 서(暑)는 일(日)+자(者: 불태우다)로, 태양이 이글이글 타올라 대지를 비추는 것에서 '달다'를 의미한다.
피서(避暑)는 더위를 피함이다. 더운 시기에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시원한 지역 즉 피서지(避暑地)로 옮겨 거주하는 것이다. 반대로 추위를 피하는 것은 피한(避寒)이다.
초여름을 달구었던 추곡열기를 길고 긴 잠마와 폭우로 식히는가 하더라도, 이번에는 피서열기로 한반도가 후끈거린다. 산(山), 계곡(溪谷), 해변(海邊), 모든 곳이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인파(人波)로 몸살을 앓는다. 도심에서 지친 심신을 자연 속에서 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充禡)하려는 피서가 오히려 피곤함과 후회만을 남길 수도 있다.
올해는 문화(文化)피서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시원한 공연장에서 평소소 감상(鑑賞)하지 못했던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고, 또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전시품(展示品)을 둘러보면 감성충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리를 팔기가 귀찮다면, 방안에 탁족도(濯足圖)라도 걸어놓고 수박 한 조각 배어 들면 그것이 진정한 피서일 것이다.

<한예민(韓睿嫻)>
조선대학교 교정연구원 ☎ 230-6505